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2. 02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2. 02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경북경제동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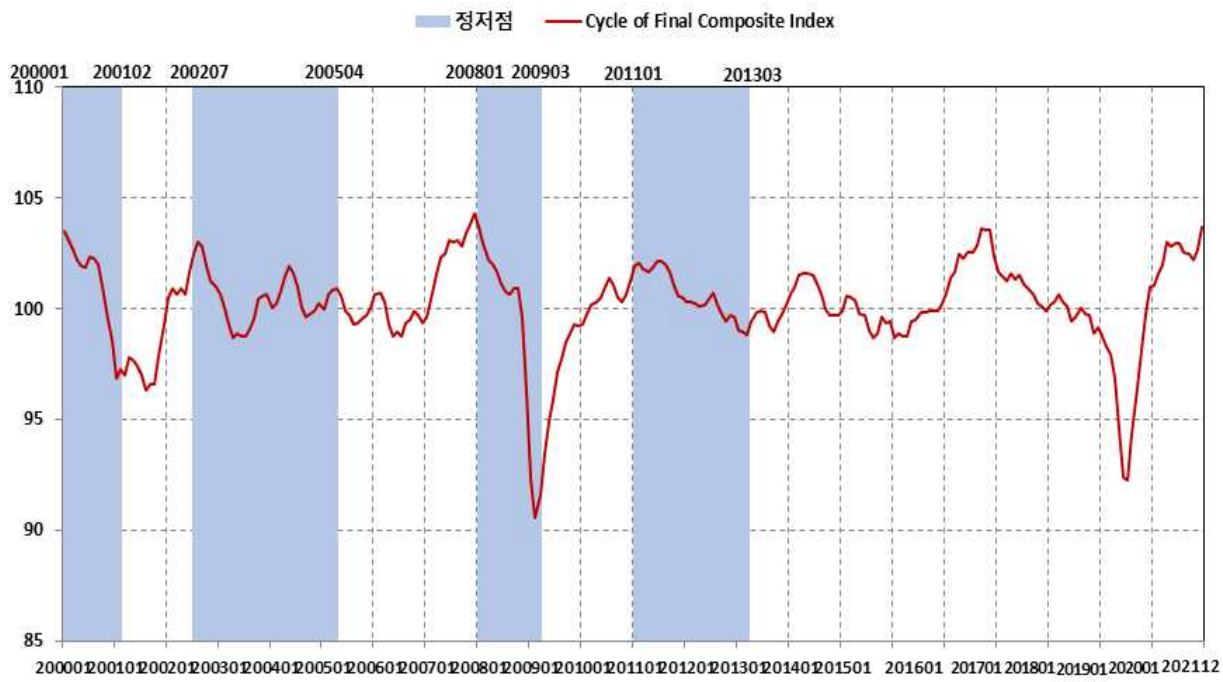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1.12
	BSI	22.02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2.01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2.01
	신용카드사용액	21.11
투 자	자본재수입액	22.01
건 설	건축허가면적	22.01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2.01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2.01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2.02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1.12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2.02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22.01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2.01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1.12

경북경제동향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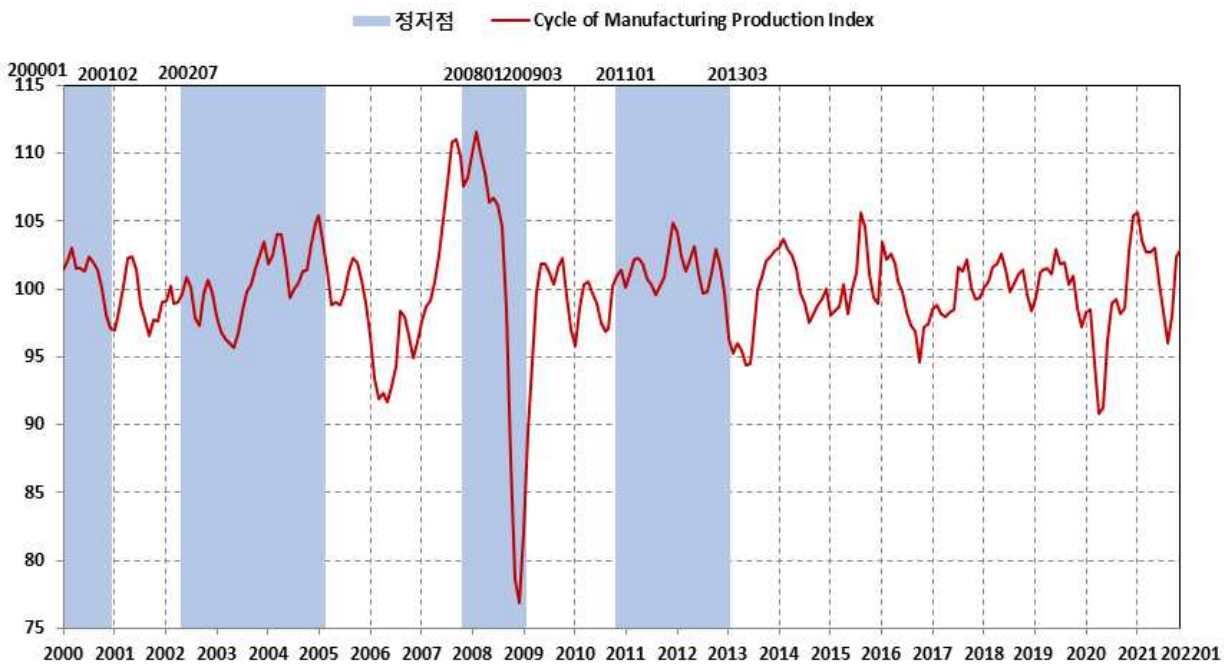
경 기	• 지난달에 이어 교역 증가는 지속되고 소비심리도 소폭 회복되었지만,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 감소로 제조업업황 부진
생 산	•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금속가공품, 1차금속 업종의 생산 감소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명절효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투 자	• 자본재수입은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입이 상승한 반면 수송장비 중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감소
건 설	• 건설수주액은 기계설치, 점포, 공장, 발전, 철도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교 역	• 교역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 지속
고 용	• 취업자 증가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2천 명), 제조업 (2만 명) 등에서 견인, 임금근로자수 회복세 지속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와 식품, 음료, 생활용품 등의 가격 인상이 물가상승 견인
금 융	• 12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 기업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구미, 포항, 경산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 감소, 부도업체수 및 신설법인수 감소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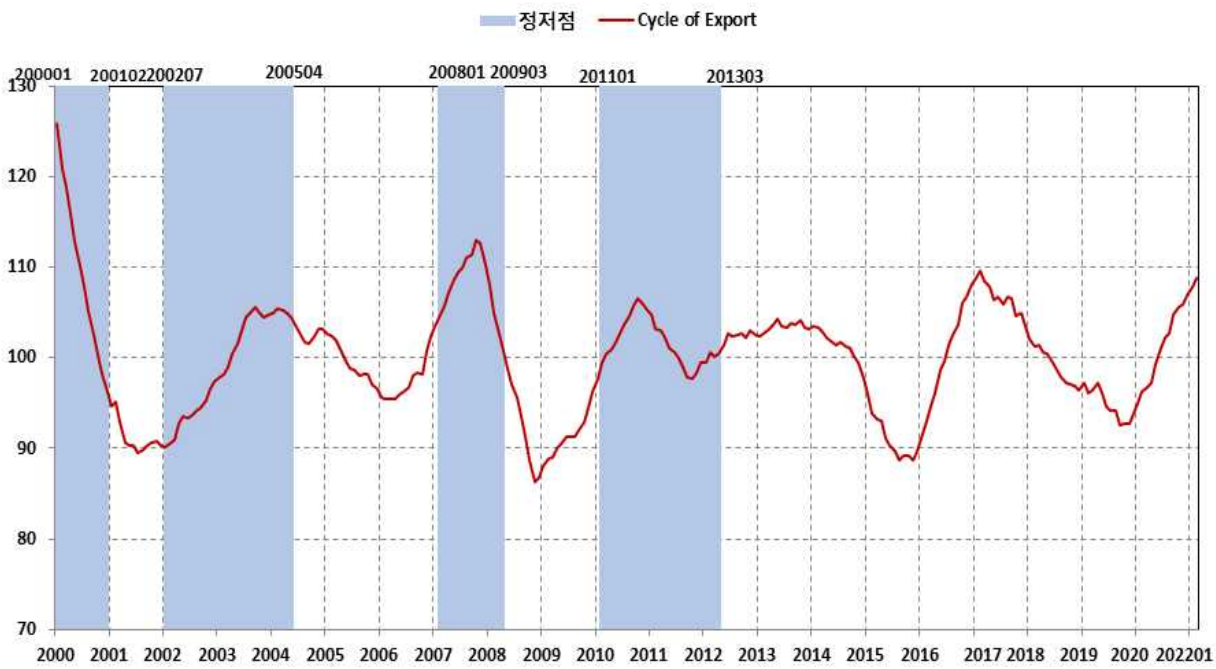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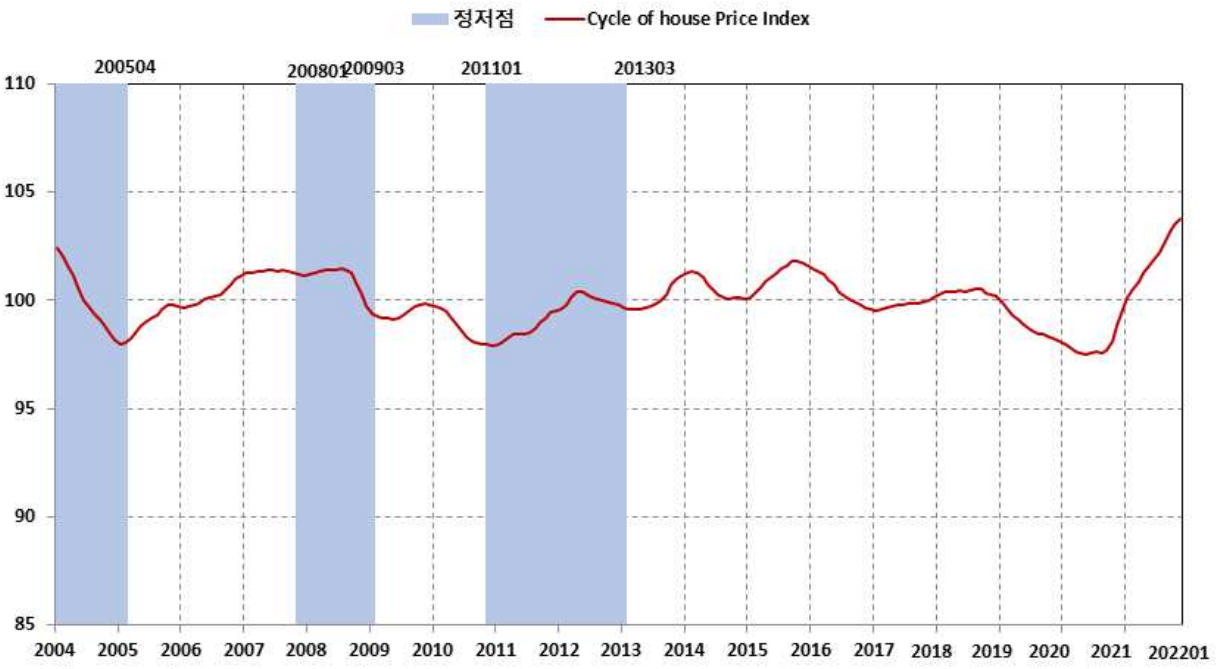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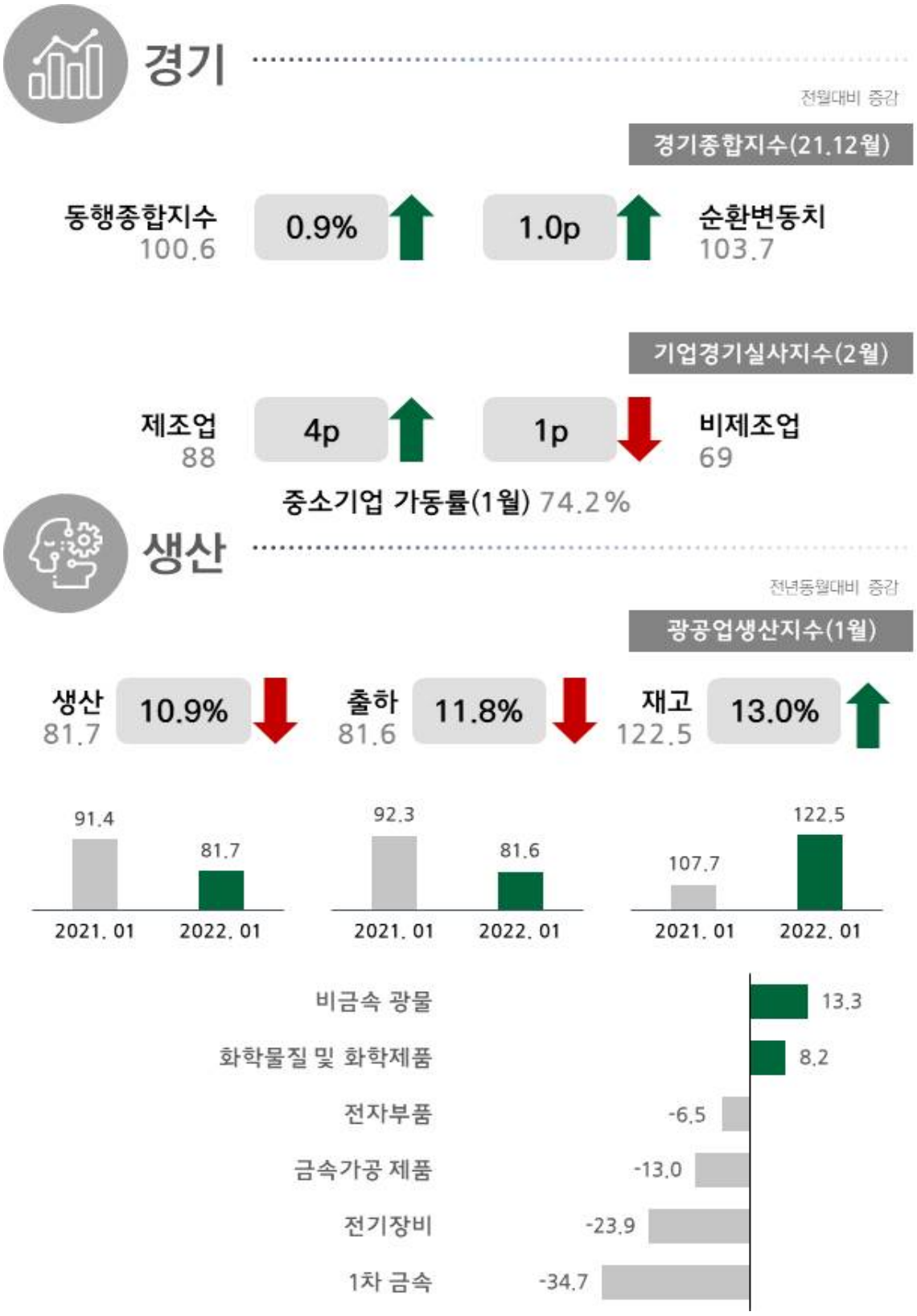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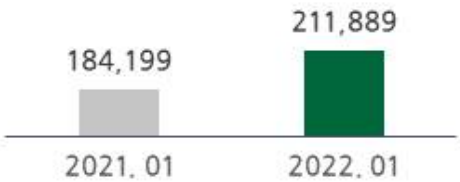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월)	신용카드사용액(21.11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1월)
99.3	1조 1,758억 원	5,899대
16.5% ▲	20.1% ▲	18.8%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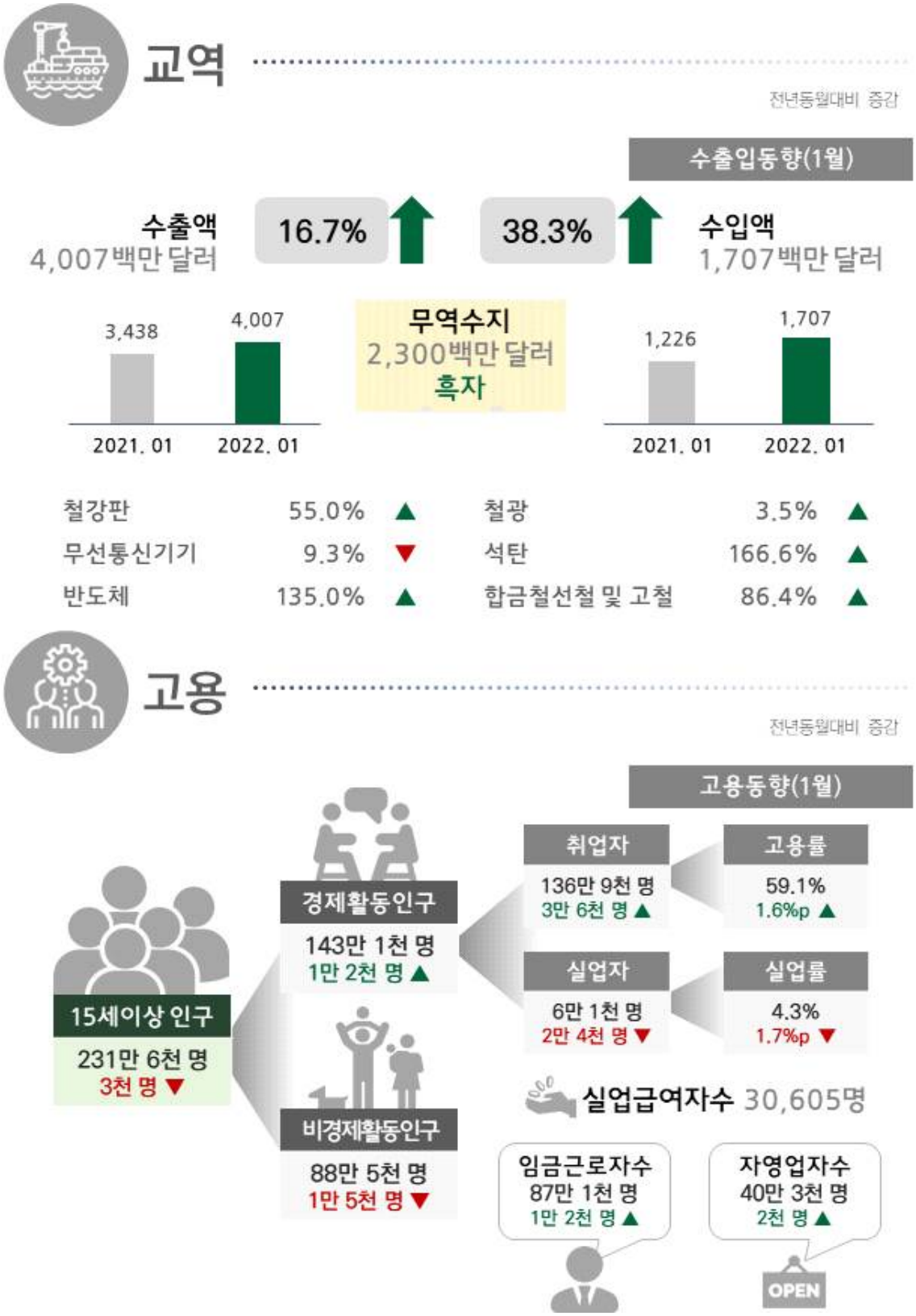
자본재수입액(1월)
211,889천 달러 15.0%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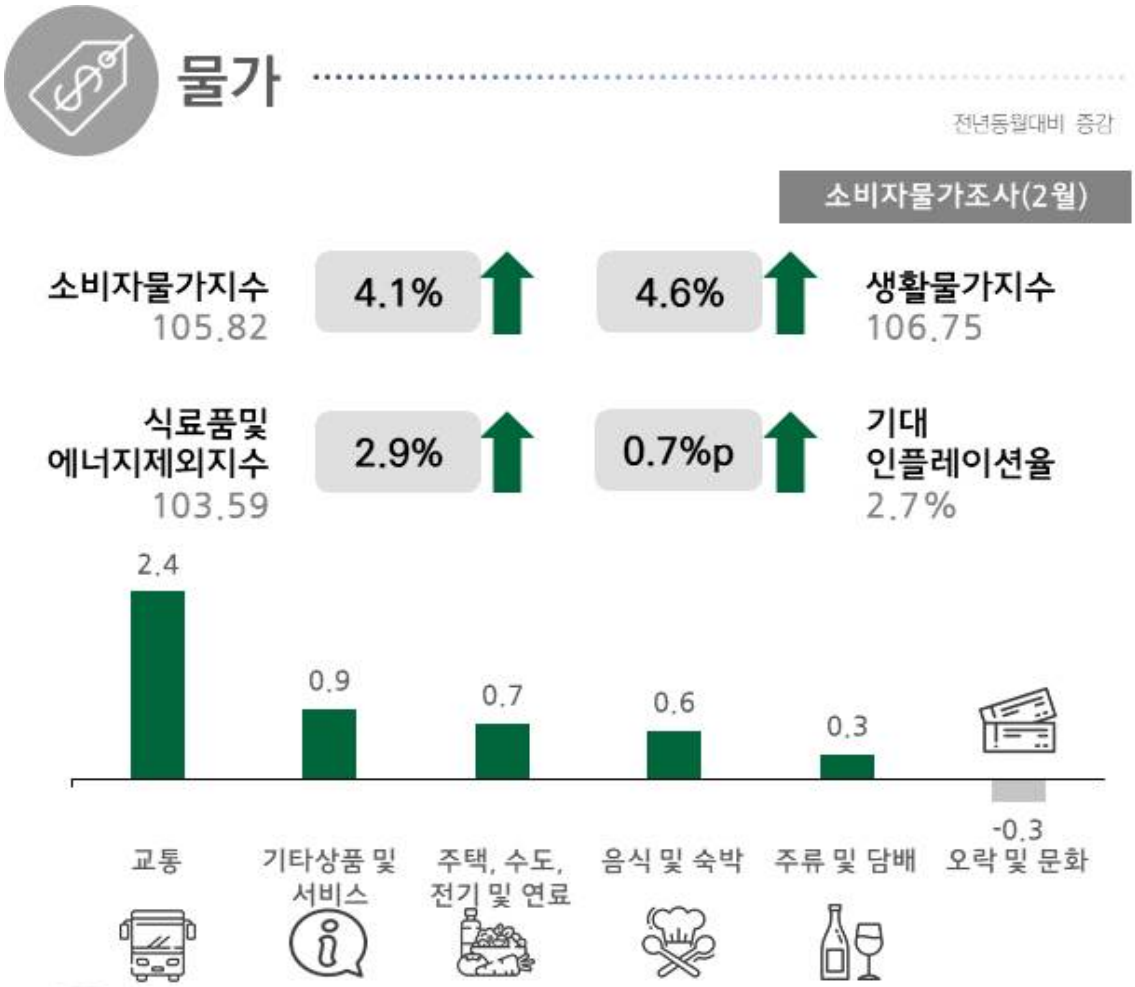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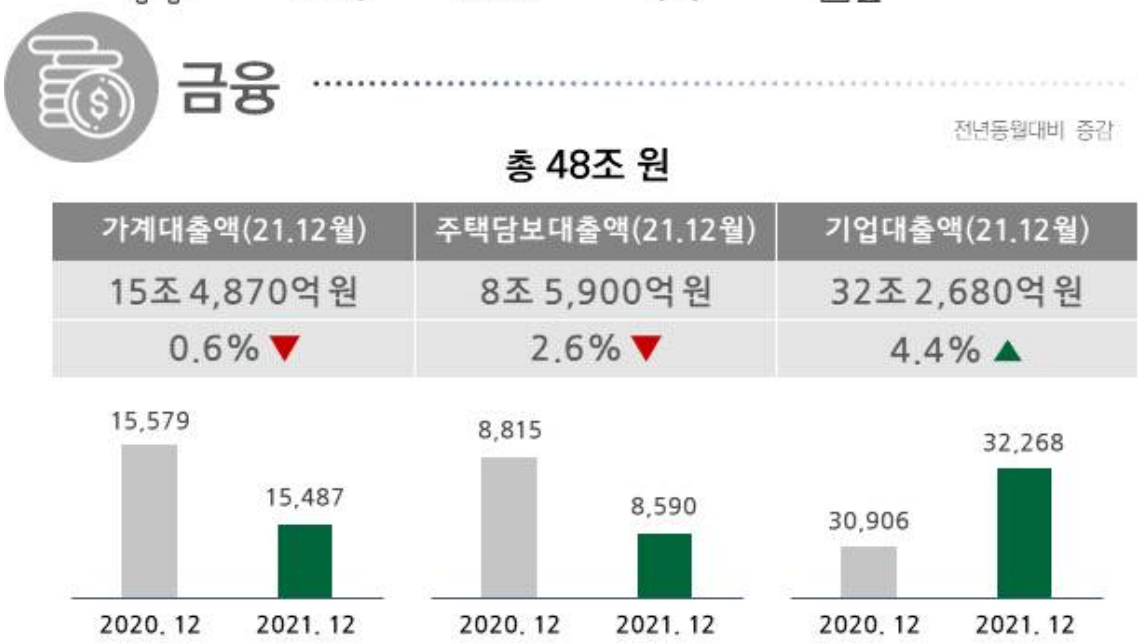
건축물허가면적(1월)	건축물착공면적(1월)	건설수주액(1월)
1,462,515㎡	301,970㎡	5,226억 원
341.5% ▲	50.7% ▼	19.5%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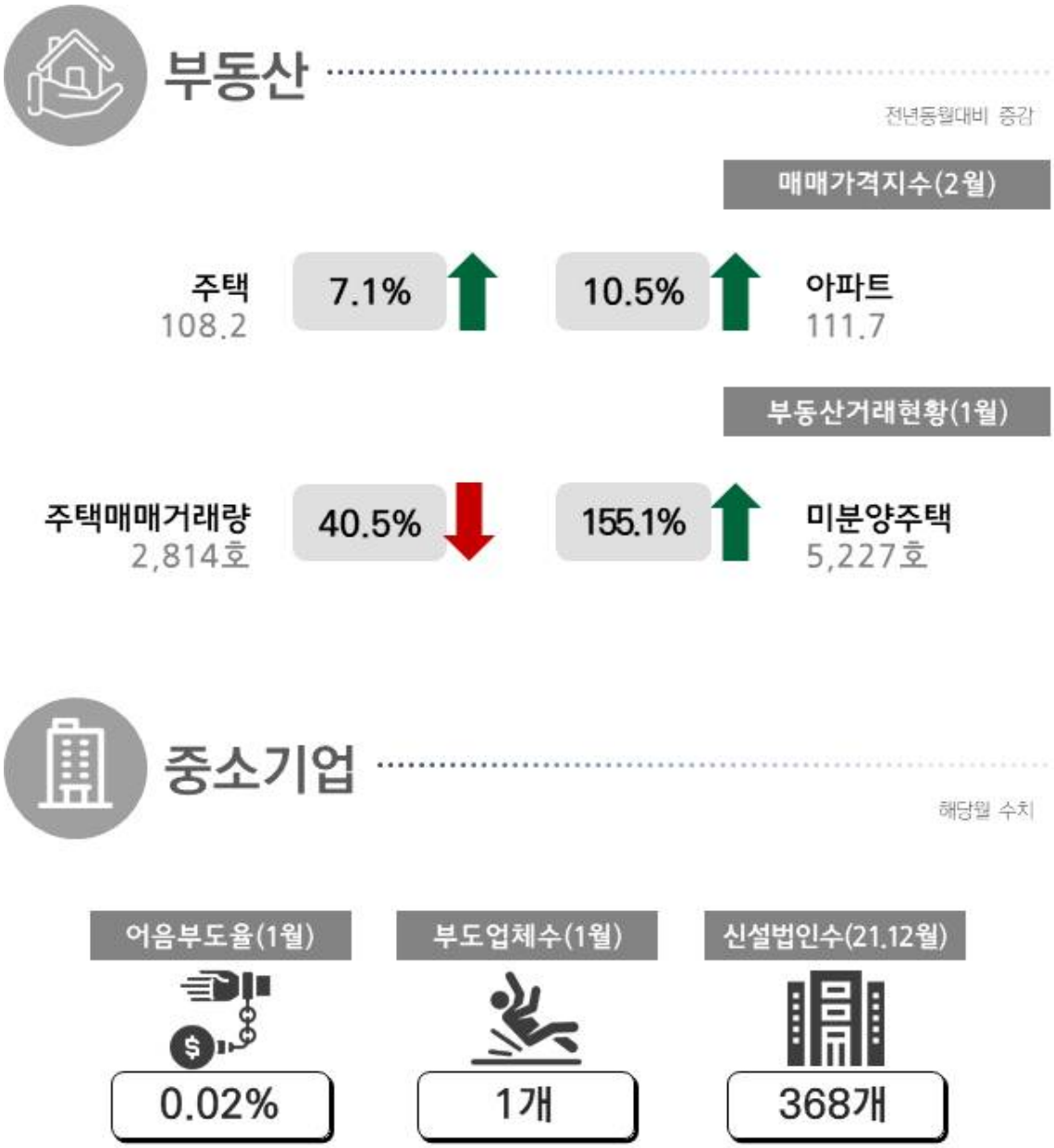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12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9%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00.6으로 전월대비 0.9% 상승, 순환변동치는 103.7로 전월차 1.0p 증가

- 구성지표 중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3.3%),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1.2%), 수출액(실질)(4.8%), 수입액(실질)(4.5%)은 증가, 비농가취업자수(0.0%)는 보합,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0.5%), 제조업전력사용량(−0.1%)은 감소

12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8%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18.7로 전월대비 0.8% 상승, 순환변동치는 102.1로 전월차 0.7p 증가

- 구성지표 중 건설기성액(2.7%), 광공업생산지수(2.2%)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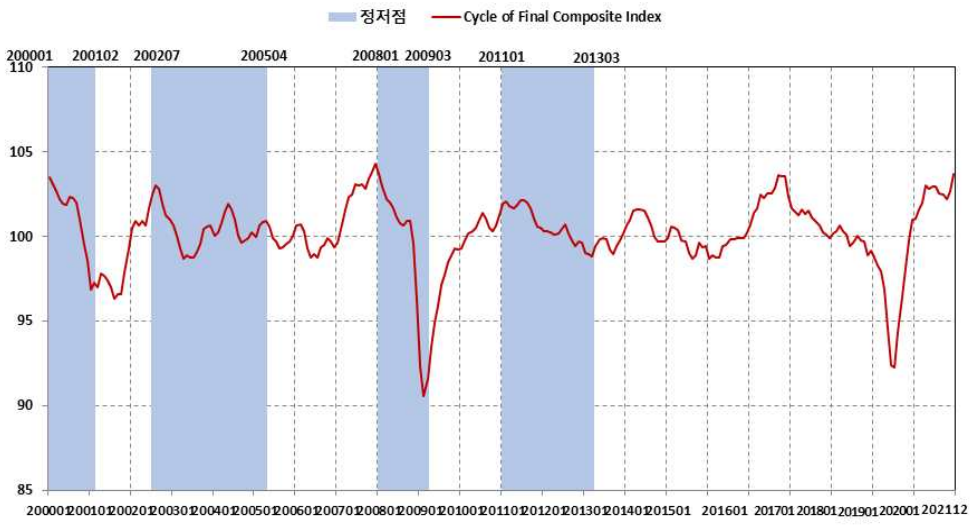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1					
		07	08	09	10p	11p	12p
경북	동행종합지수	99.8	99.4	99.4	99.2	99.7	100.6
	전월대비(%)	0.0	−0.4	0.0	−0.2	0.5	0.9
	순환변동치	103.0	102.5	102.5	102.2	102.7	103.7
	전월차(p)	0.1	−0.5	0.0	−0.3	0.5	1.0
전국	동행종합지수	117.0	117.1	117.2	117.1	117.7	118.7
	전월대비(%)	0.2	0.1	0.1	−0.1	0.5	0.8
	순환변동치	101.3	101.3	101.2	101.0	101.4	102.1
	전월차(p)	0.1	0.1	−0.1	−0.2	0.4	0.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2022년 2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증가, 비제조업 BSI 감소

2022년 2월 제조업 BSI는 88, 비제조업 BSI는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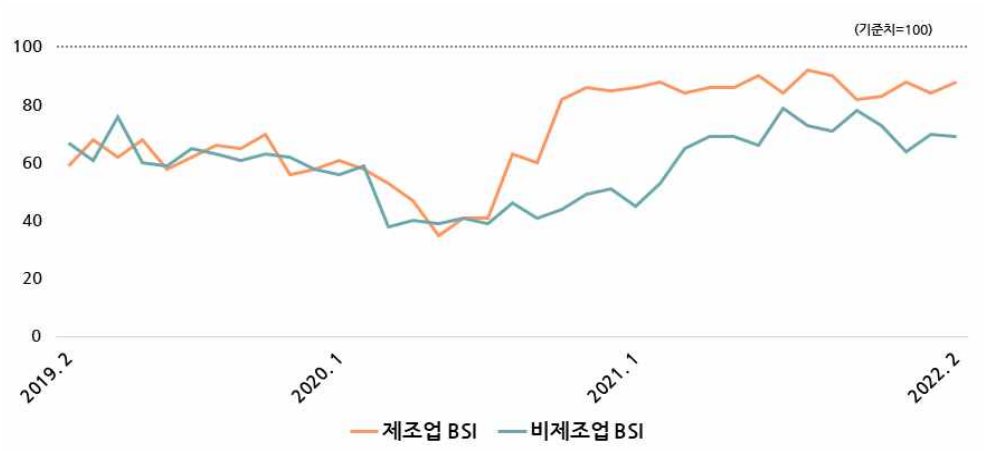
○ 제조업 업황BSI는 88로 전월대비 4p, 2022년 3월 업황 전망BSI는 91로 4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102로 전월대비 8p 증가, 2022년 3월 전망은 100으로 4p 감소
- 생산BSI는 105로 전월대비 8p, 2022년 3월 전망은 107로 6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81로 전월대비 2p, 2022년 3월 전망은 88로 7p 각각 증가

○ 비제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대비 1p 감소, 2022년 3월 업황 전망BSI는 72로 6p 증가
- 매출BSI는 78로 전월대비 2p 감소, 2022년 3월 전망은 82로 2p 증가
- 채산성BSI는 74로 전월대비 4p 감소, 2022년 3월 전망은 79로 1p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1						2022		
	07	08	09	10	11	12	01	02	03
제조업 BSI	84 (87)	92 (81)	90 (91)	82 (92)	83 (84)	88 (87)	84 (83)	88 (87)	– (91)
비제조업 BSI	79 (70)	73 (77)	71 (72)	78 (68)	73 (80)	64 (69)	70 (58)	69 (66)	– (72)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년 2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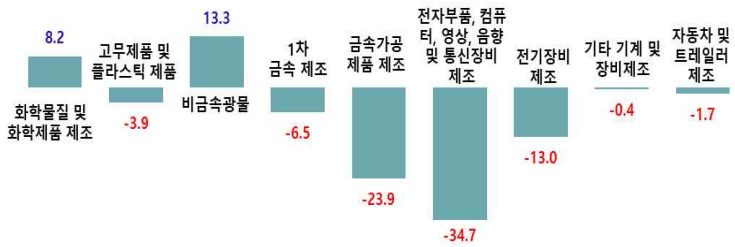
생산

2022년 1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증가 재고 감소

광공업생산지수는 81.7로 전년동월대비 10.9%, 전월대비 10.9% 각각 하락

○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자제품, 금속가공, 1차금속 등에서 감소했으나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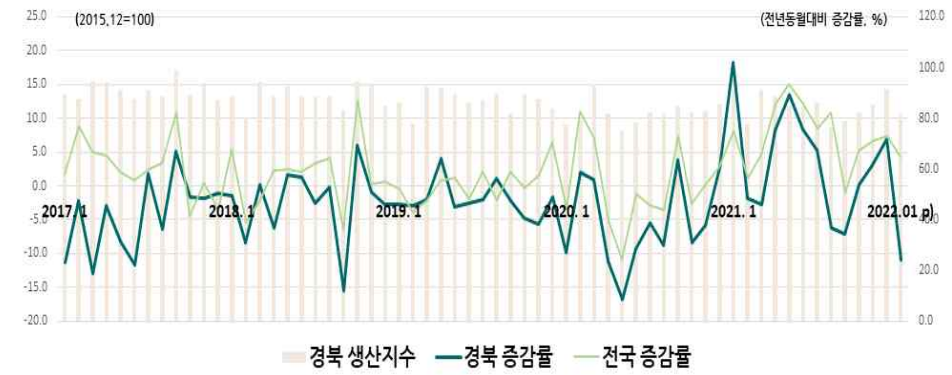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에서 전자부품(-34.7%)은 휴대용전화기, 기타LCD, DDI 등에서 감소, 금속가공(-24.7%)은 용접봉, 육상금속구조물, 판금제품 등에서 감소, 1차금속(-6.5%)은 냉연강판, 석도강판, 형강 등에서 감소
- 화학제품(8.1%)은 반도체용식가제, 폴리에서트섬유, 복합비료 등에서 감소
- 비금속광물(13.3%)은 유리섬유, 레미콘, 내화벽돌 등에서 감소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p	01p
82.0 (-5.7)	86.4 (5.2)	76.6 (-6.1)	78.7 (-7.1)	82.5 (0.2)	85.1 (3.0)	**91.7** **(6.9)**	**81.7** **(-10.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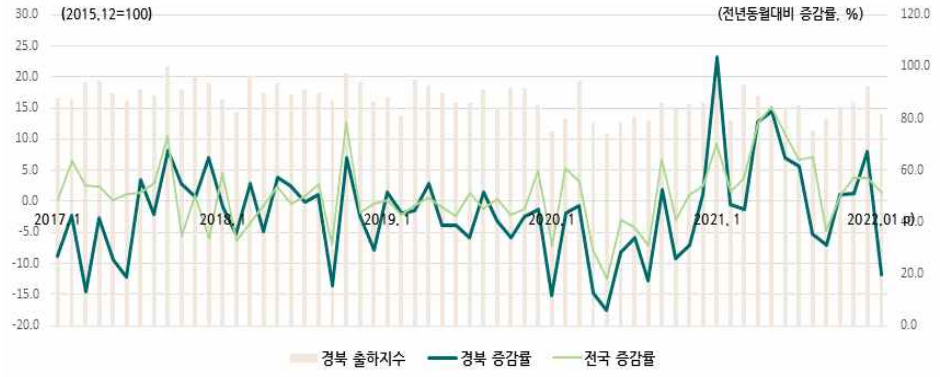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11.8%, 전월대비 12.1%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식료품(10.9%), 비금속광물(15.3%), 담배(38.3%) 등이 증가, 전자부품(−35.3%), 금속가공(−25.6%), 고무 및 플라스틱(−8.9%)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p	01p
81.8	85.2	75.3	79.6	84.3	86.4	**92.8**	**81.6**
(−7.6)	(5.6)	(−5.3)	(−7.1)	(1.1)	(1.3)	**(7.9)**	**(−11.8)**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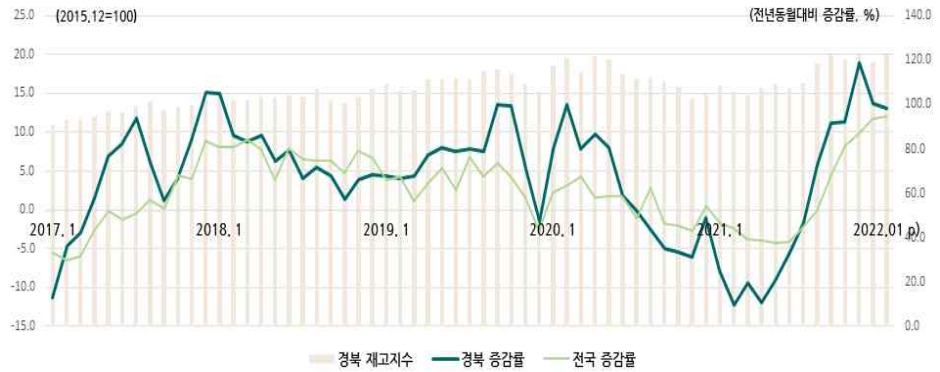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 전년동월대비 13.0% 상승, 전월대비 2.9% 상승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전자부품(32.4%), 1차금속(8.8%), 기계장비(18.8%) 등이 증가, 금속가공(−9.1%), 담배(−21.1%), 섬유제품(−5.5%)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p	01p
104.6	109.6	118.6	122.5	120.0	122.2	**119.0**	**122.5**
(−0.9)	(−1.6)	(5.8)	(11.2)	(11.3)	(19.0)	**(13.8)**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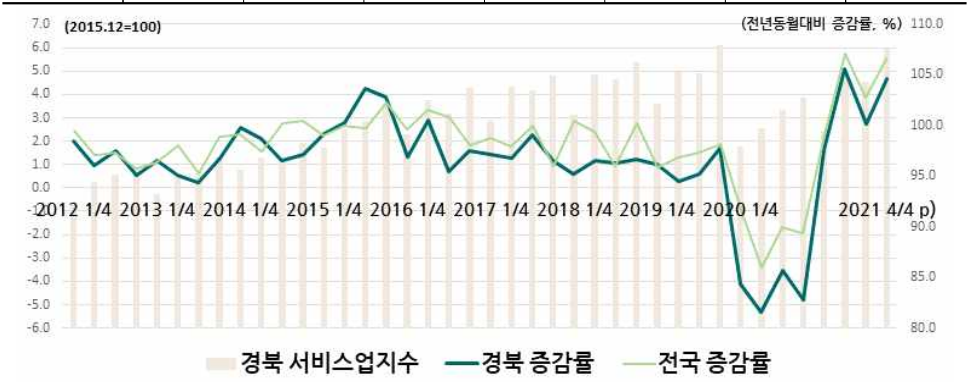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4/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4.7%, 전분기대비 3.2% 각각 상승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1/4	2/4	3/4	4/4	1/4	2/4p	3/4p	4/4p
97.9	99.7	101.5	102.8	99.5	104.8	104.3	107.6
(−4.1)	(−5.3)	(−3.5)	(−4.8)	(1.6)	(5.1)	(2.8)	(4.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2022년 1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16.5%, 전월대비 17.7% 각각 상승

2022년 1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9.3으로 전년동월대비 16.5% 상승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15.2로 전년동월대비 17.3%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103.0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신발·가방, 의복, 음식료품, 기타상품은 증가, 가전제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p	01p
대형 소매점	82.6 (-4.5)	98.5 (26.4)	85.1 (-2.7)	93.6 (-3.4)	87.6 (8.1)	78.5 (-3.9)	**84.4 (-0.9)**	**99.3 (16.5)**
대형마트	86.1 (-2.4)	103.9 (26.7)	91.1 (-3.2)	96.6 (-6.2)	86.8 (6.8)	76.2 (-6.3)	**85.8 (-2.9)**	**103.0 (15.0)**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1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1,7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상승

○ 금융·보험(80.8%), 기타(83.6%), 식료품(19.9%)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53.6%)의 사용액 감소

- 종합소매(7.3%), 숙박·음식(13.6%)의 사용액 모두 증가
- 종합소매(7.3%)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9.0%), 슈퍼마켓(8.1%), 백화점(6.0%), 대형마트(3.0%)의 사용액은 증가
- 숙박·음식(13.6%) 사용액 중 숙박(16.2%), 음식점(13.4%)의 사용액 모두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1							
04	05	06	07	08	09	10	11
1,011.3 (17.8)	1,089.2 (6.3)	1,057.2 (10.3)	1,138.4 (19.2)	1,115.4 (6.4)	1,100.2 (13.8)	1,174.0 (20.1)	**1,175.8** **(20.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2022년 1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5,899대로 전년동월대비 18.8% 하락

○ 신차 출고 지연 지속으로 인해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79,482 (6.3)	7,277 (1.5)	5,364 (−0.5)	4,989 (−30.1)	5,025 (−26.0)	6,179 (−18.0)	5,582 (−16.1)	**5,899** **(−18.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7.	7,277	4,997	100	2,083	97
8.	5,364	3,912	74	1,299	79
9.	4,989	3,547	86	1,270	86
10.	5,025	3,919	82	946	78
11.	6,179	4,702	92	1,313	72
12.	5,582	4,030	110	1,343	99
2022. 1.	5,899	4,336	95	1,386	82

투자

2022년 1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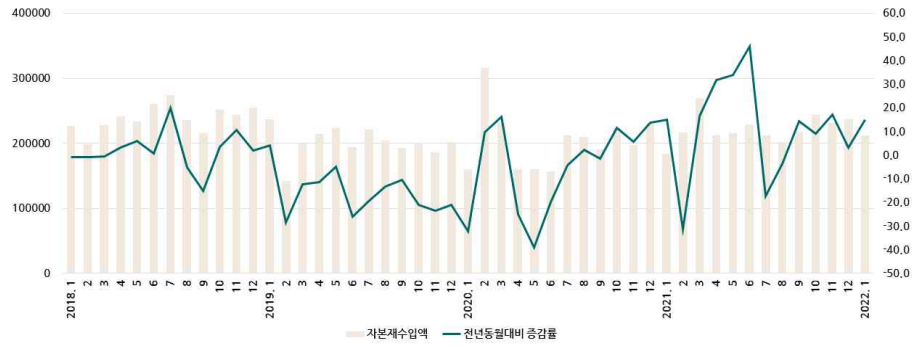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11,889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0% 상승

-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13.5%)와 전기·전자기기(13.4%), 기타 자본재(18.8%)의 수입은 증가, 수송장비(−92.4%)의 수입은 감소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광학기기(323.6%), 펌프(56.5%), 측정시험기(49.3%), 금속공작기계(33.6%)의 수입이 증가
- 전기·전자기기 중 메모리반도체(220.3%)의 수입이 증가
- 수송장비 중 자동차부품(−88.9%)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1							2022
06	07	08	09	10	11	12	01
228,588 (46.1)	211,716 (−17.4)	201,991 (−3.6)	218,249 (14.5)	243,481 (9.0)	231,223 (17.3)	237,066 (3.2)	**211,889** **(15.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2022년 1월 건축물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상승, 건축물착공면적 하락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41.5% 상승한 1,462,515㎡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257.3% 증가한 967,042㎡, 상업용은 99.1% 증가한 119,038㎡, 공업용은 23.1% 증가한 131,896㎡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50.7% 하락한 301,970㎡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65.8% 감소한 92,507㎡, 상업용은 7.3% 감소한 55,421㎡,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66.5% 감소한 35,855㎡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21						2022
	07	08	09	10	11	12	01
건축허가면적	1,110,817 (82.7)	1,580,294 (210.0)	795,092 (31.9)	1,271,083 (163.4)	750,995 (37.1)	908,242 (61.1)	**1,462,515** **(341.5)**
건축착공면적	669,072 (52.9)	461,469 (−37.0)	694,149 (40.1)	1,289,009 (144.3)	1,081,782 (−7.0)	1,298,535 (33.0)	**301,970** **(−50.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2022년 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 건설수주액은 기계설치, 점포, 공장, 발전, 철도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9.5% 상승한 522,556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224,567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0% 하락, 토목부문 297,989백만 원으로 145.8% 상승
- (발주자별) 공공부문 139,604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 민간부문 382,935백만 원으로 24.8% 각각 상승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p	01p
7,816,612	755,456	587,558	898,229	1,653,721	704,624	1,247,276	522,556
(88.5)	(−17.8)	(−16.2)	(262.0)	(88.2)	(61.3)	(−41.9)	(19.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2022년 1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수출액은 4,00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7%, 수입액은 1,70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8.3% 각각 상승, 무역수지는 2,300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강판(55.0%), 무선통신기기(−9.3%), 반도체(135.0%), 평판디스플레이(41.4%)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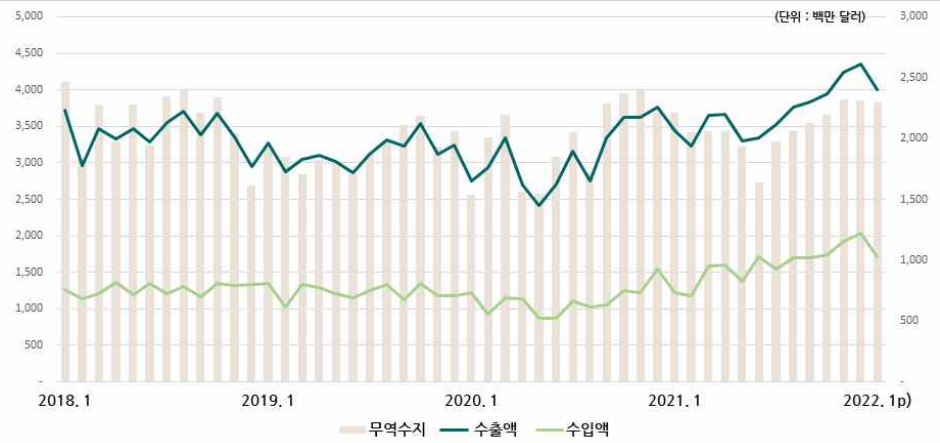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3.5%), 석탄(166.6%), 합금철선철및고철(86.4%), 정밀화학원료(85.2%)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5.5%), 미국(−10.6%), 베트남(27.9%), 일본(12.0%) 순

○ 포항시 2022년 1월 화물수송은 4,628,053톤(R/T)으로 외항 3,911,339톤(R/T)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07	08	09	10	11p	12p	1p
수출액	3,518 (11.5)	3,760 (36.8)	3,831 (14.7)	3,944 (8.9)	**4,238** **(17.0)**	**4,350** **(15.7)**	**4,007** **(16.7)**
수입액	1,540 (39.3)	1,697 (65.4)	1,706 (61.8)	1,748 (40.0)	**1,920** **(57.2)**	**2,040** **(31.7)**	**1,707** **(38.3)**
무역수지	1,979	2,063	2,124	2,196	**2,318**	**2,310**	**2,300**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2022년 1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3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0.8%)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88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하락, 전월대비 1.5% 상승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1,478 (−0.7)	1,474 (−2.4)	1,453 (−2.3)	1,468 (−1.2)	1,474 (−0.9)	1,461 (−2.3)	1,438 (−0.3)	**1,431** **(0.8)**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1월 취업자 136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6천 명(2.7%) 증가

-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2천 명), 제조업 (2만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천 명), 건설업(1천 명)은 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업(−6천 명), 농림어업 (−4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2.6%)은 9대 광역도 중 8번째 상승폭 기록

○ 제조업 취업자수는 2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22만 명으로 11.3% 각각 상승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1,418 (−0.8)	1,438 (−0.5)	1,432 (−0.6)	1,447 (0.6)	1,450 (0.8)	1,437 (−0.5)	1,397 (0.9)	**1,369** **(2.7)**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2022년 1월 고용률 59.1%로 전국평균 하회, 실업률 4.3%로 전국평균 상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6%p 증가한 59.1%로 전국평균 59.6% 하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1%로 전국 67.0%보다 낮은 수준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7%p 감소한 4.3%로 전국평균 4.1%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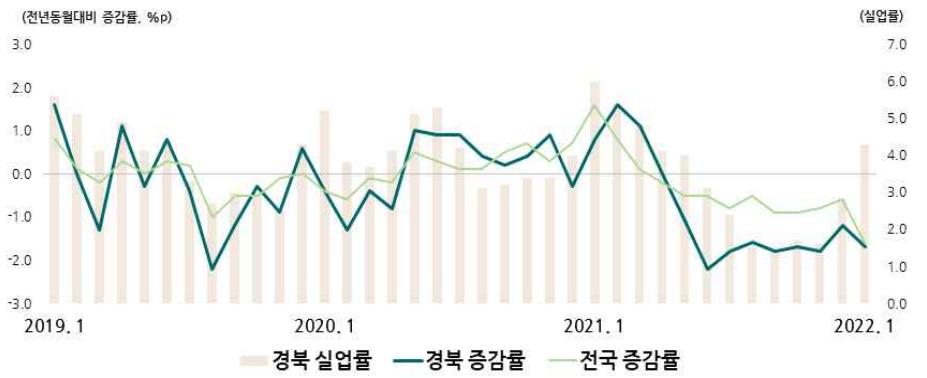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6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천 명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고용률	61.1 (−0.6)	62.3 (0.0)	62.0 (−0.1)	62.7 (0.7)	62.8 (0.8)	62.2 (−0.1)	60.5 (0.8)	**59.1** **(1.6)**
실업률	4.0 (0.1)	2.4 (−1.8)	1.5 (−1.6)	1.4 (−1.8)	1.7 (−1.7)	1.6 (−1.8)	2.8 (−1.2)	**4.3** **(−1.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2022년 1월 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한 87만 1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1.3%), 일용근로자수(7.5%), 임시근로자수(25.2%) 모두 증가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한 40만 3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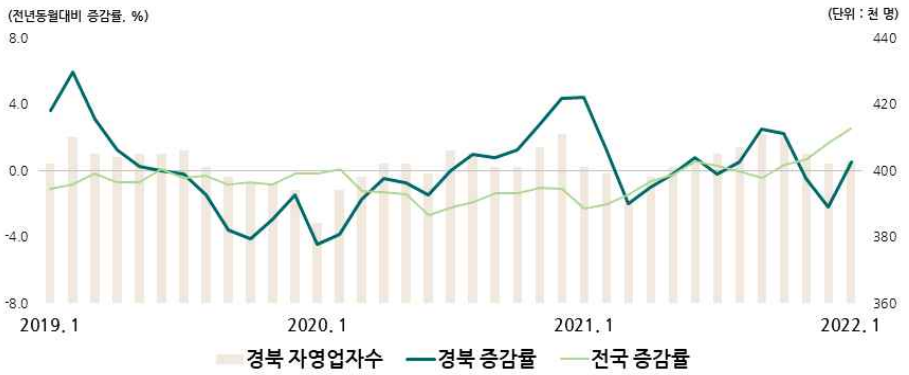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13.6%)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1.0%)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임금	893	896	891	901	901	905	893	**871**
근로자	(−1.0)	(−0.5)	(−1.1)	(0.1)	(0.0)	(−0.1)	(3.5)	**(3.8)**
자영	401	405	407	411	410	405	402	**403**
업자	(−0.2)	(−0.3)	(0.6)	(2.3)	(2.0)	(−0.5)	(−2.1)	**(0.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2로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전월대비 교통(2.4%), 주택·수도·전기·연료(0.7%), 음식·숙박(0.6%), 음식·숙박(0.6%), 기타 상품·서비스(0.9%), 식료품 · 비주류음료(0.1%), 의류·신발(0.1%), 주류·담배(0.3%), 교육(0.1%) 등은 상승,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은 보합, 오락·문화(−0.3%)는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106.75로 전년동월대비 4.6%,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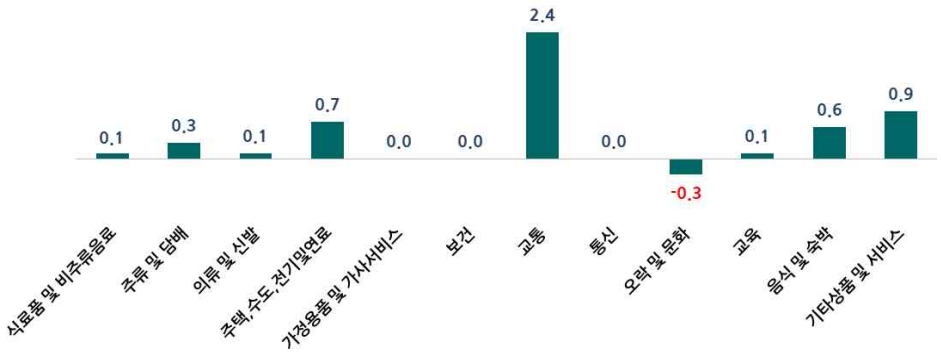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08.69로 전년동월대비 4.8%, 식품이외는 105.49로 4.4%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08	09	10	11	12	01	02
소비자 물가지수	100.00 (0.1)	103.01 (2.9)	103.52 (2.8)	103.75 (3.7)	104.38 (4.4)	104.65 (4.4)	105.26 (4.2)	**105.82 (4.1)**
생활 물가지수	100.00 (−0.2)	103.68 (3.8)	104.74 (3.7)	104.98 (5.4)	105.68 (6.0)	105.33 (5.4)	105.88 (4.7)	**106.75 (4.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12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한 15.5조 원으로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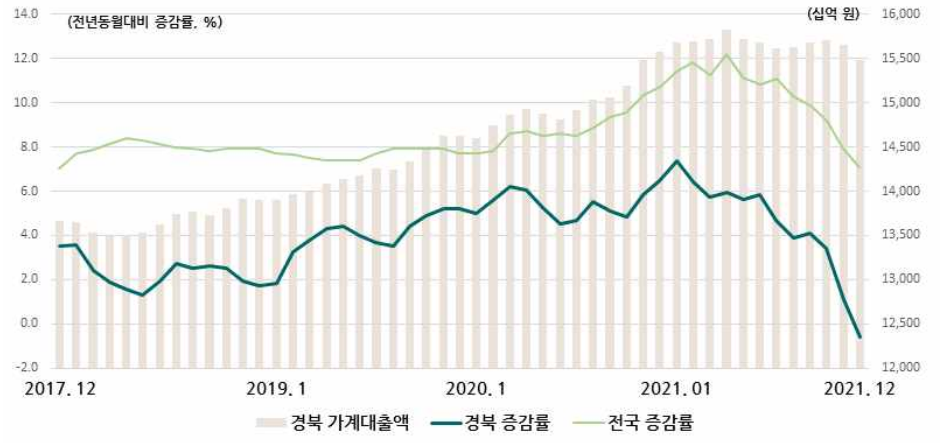
○ 총 대출액 48조 원 중 가계대출은 32.0% 차지

12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월대비 하락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15,579	15,677	15,621	15,622	15,686	15,706	15,650	15,487
(6.5)	(5.8)	(4.7)	(3.9)	(4.1)	(3.4)	(1.1)	(−0.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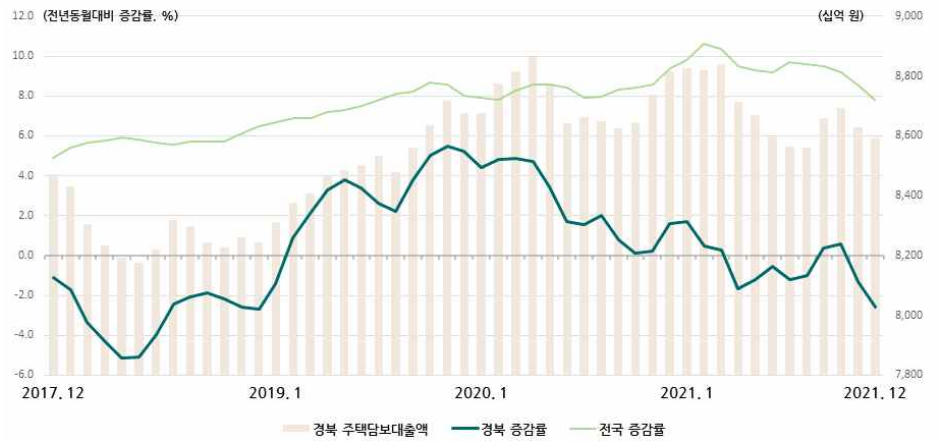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대비 0.4% 각각 감소

○ 총 가계대출 15.5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5.5%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8,815	8,595	8,562	8,561	8,661	8,695	8,628	8,590
(1.6)	(−0.6)	(−1.2)	(−1.0)	(0.4)	(0.6)	(−1.3)	(−2.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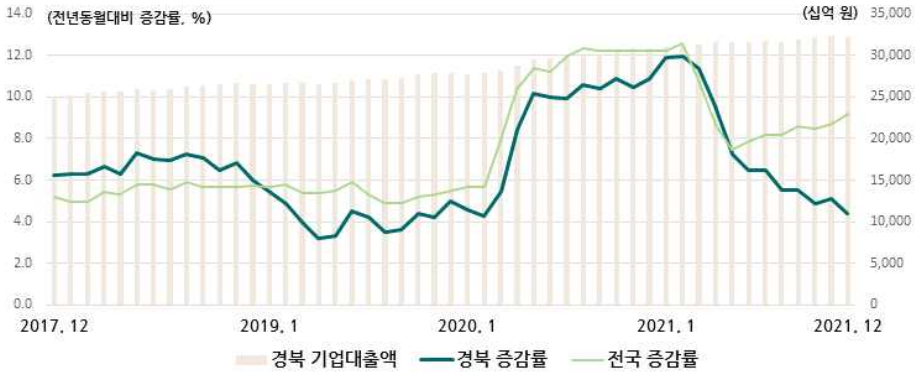
12월 기업대출액은 32.3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한 32.3조 원으로 전월대비 0.3% 감소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6	07	08	09	10	11	12
30,905	31,549	31,718	31,655	31,846	32,201	32,380	**32,268**
(10.8)	(6.5)	(6.5)	(5.5)	(5.5)	(4.9)	(5.1)	**(4.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2022년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한 108.2

- 구미(9.7%), 포항(6.9%), 경산(3.9%)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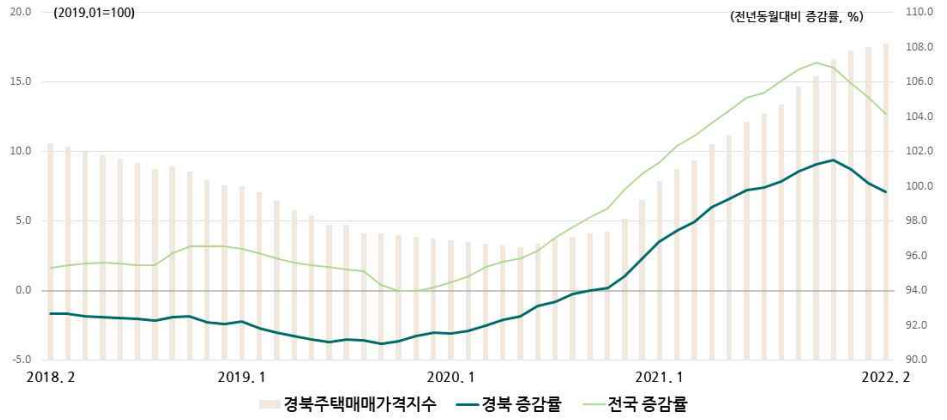
○ 2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한 1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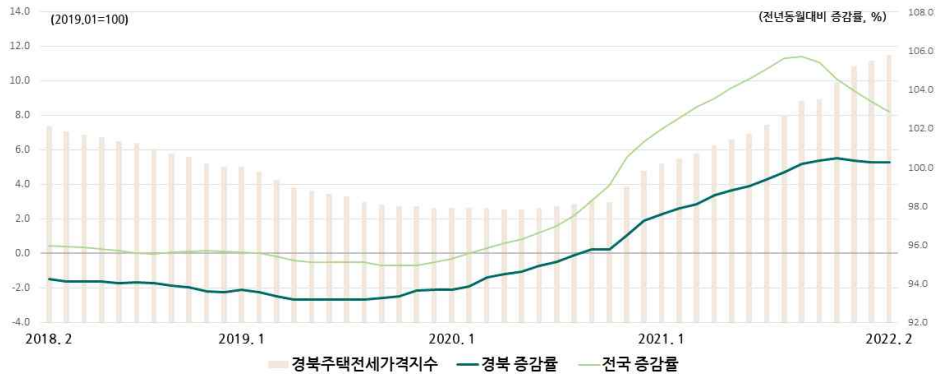
- 구미(7.0%), 포항(5.9%), 경산(1.7%)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07	08	09	10	11	12	01	02
매매	104.2 (7.4)	104.7 (7.8)	105.7 (8.6)	106.3 (9.1)	107.3 (9.4)	107.8 (8.7)	108.0 (7.7)	**108.2** **(7.1)**
전세	102.2 (4.3)	102.7 (4.7)	103.4 (5.2)	103.5 (5.4)	104.4 (5.5)	105.2 (5.4)	105.5 (5.3)	**105.8** **(5.3)**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2022년 2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0.5% 상승한 111.7

- 포항(9.9%), 구미(13.7%), 경산(5.6%), 안동(11.7%)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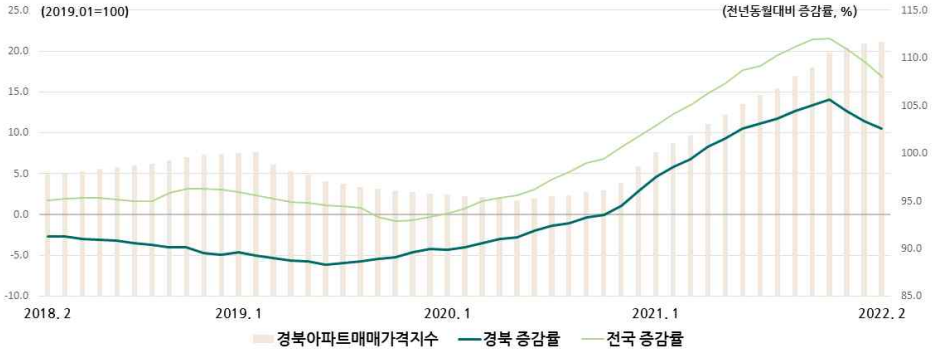
○ 2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4% 상승한 1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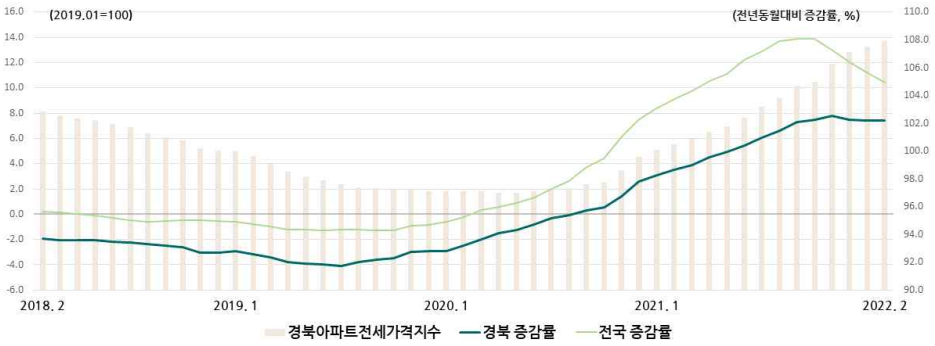
- 포항(9.0%), 구미(9.9%), 경산(2.4%), 안동(4.9%)은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07	08	09	10	11	12	01	02
매매	106.1 (11.1)	106.8 (11.7)	108.1 (12.7)	109.0 (13.4)	110.6 (14.1)	111.1 (12.7)	111.5 (11.4)	**111.7** **(10.5)**
전세	103.2 (6.1)	103.8 (6.6)	104.7 (7.3)	105.0 (7.5)	106.3 (7.8)	107.1 (7.5)	107.5 (7.4)	**107.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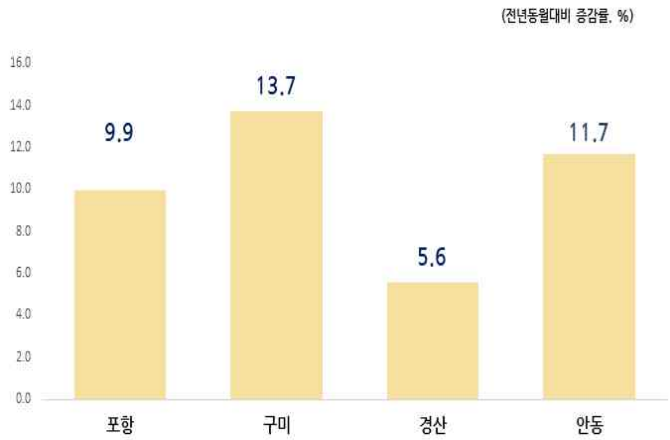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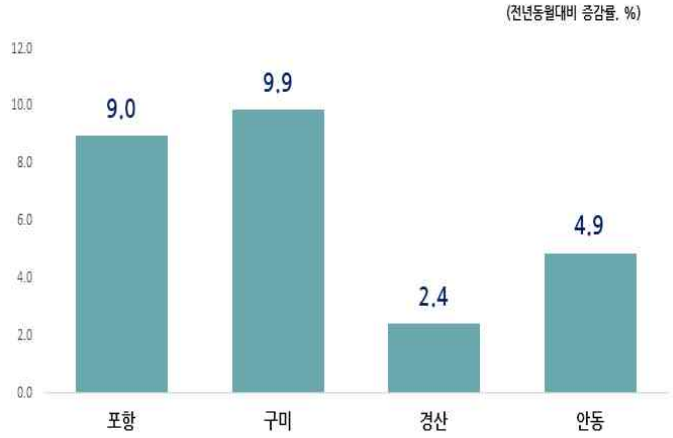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2022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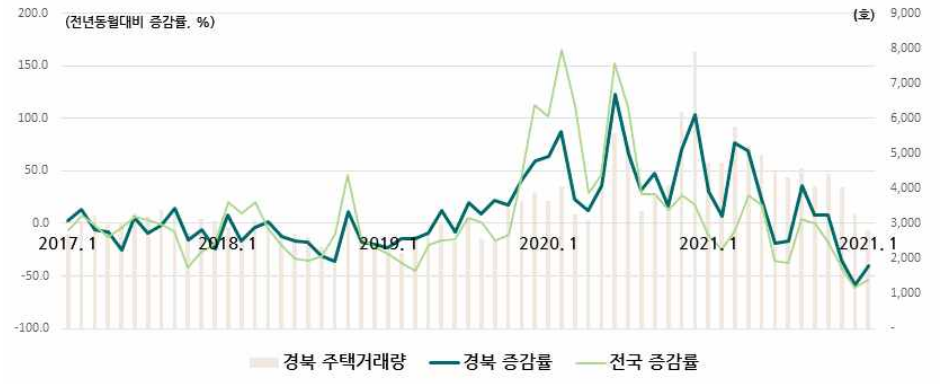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2,814호로 전년동월대비 40.5% 감소, 전국도 감소(−54.0%)

- 포항(−41.1%), 구미(−49.4%), 경산(−44.6%), 안동(−44.3%)의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감소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0	2021						2022
연간	07	08	09	10	11	12	01
54,138	4,329	4,576	4,068	4,401	4,026	3,276	2,814
(56.9)	(−17.1)	(36.2)	(7.8)	(7.5)	(−35.0)	(−58.4)	(−40.5)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2022년 1월 미분양주택은 5,227호로 전월대비 841호 증가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2,943호), 김천(811호), 경주(509호), 구미(486호) 순

중소기업

2022년 1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02%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1%p, 전월대비 0.02%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2%이고, 충북(0.22%), 경남(0.20%), 경기(0.10%), 전북(0.03%), 경북(0.0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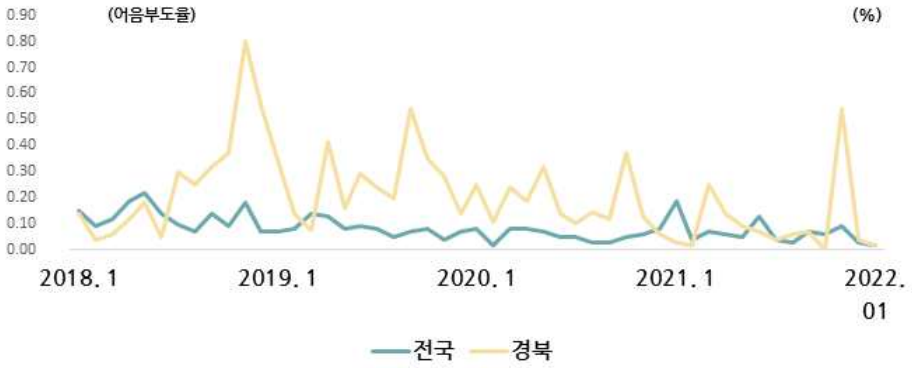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1개로 전년동월대비 1개 증가

- 총 부도금액은 3.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1							2022
	06	07	08	09	10	11	12	01
어음부도율	0.07	0.04	0.06	0.07	0.00	0.54	0.04	0.02
부도업체수	1 1	0 0	0 −2	0 −1	0 −1	2 −1	0 −4	1 1
신설법인수	376 −37	298 −103	303 0	278 −6	322 38	327 29	368 −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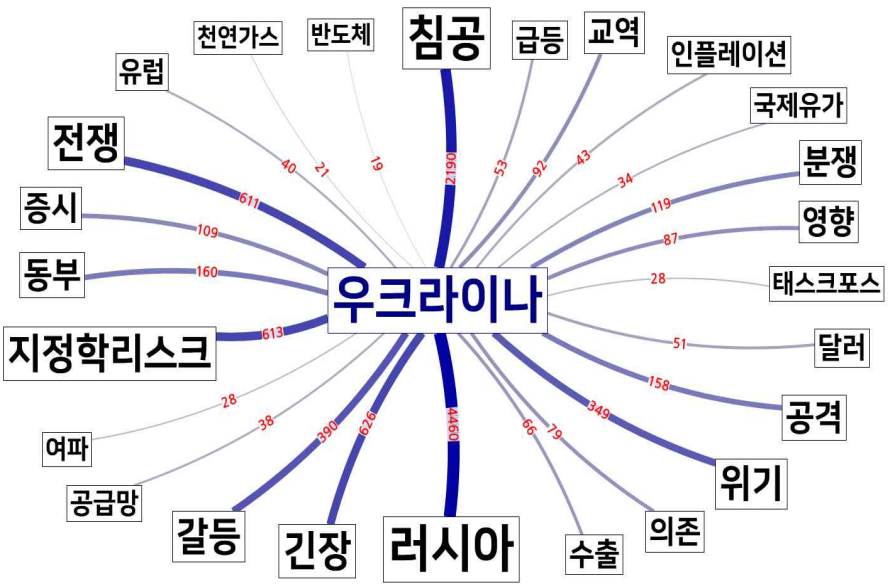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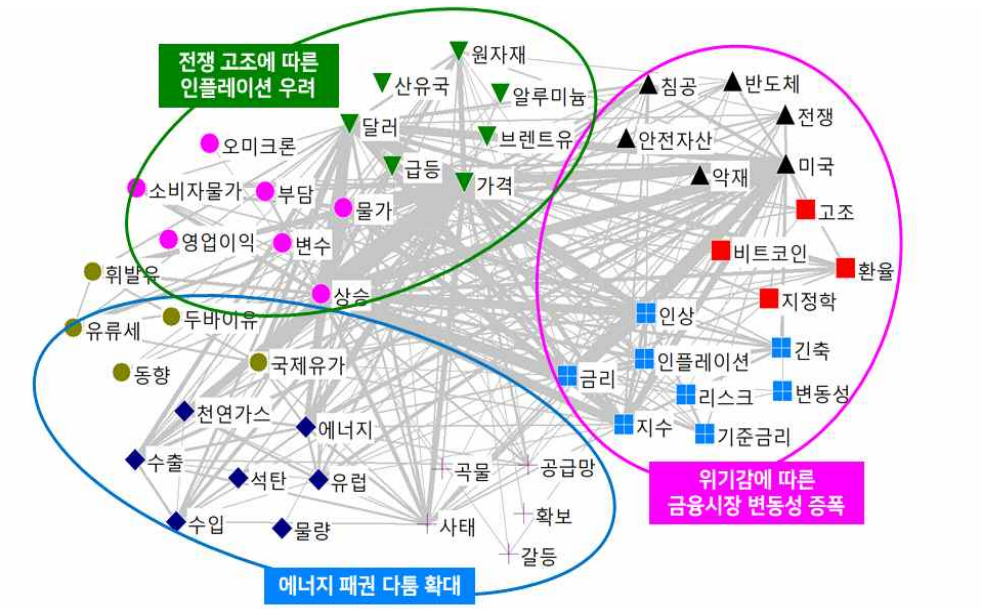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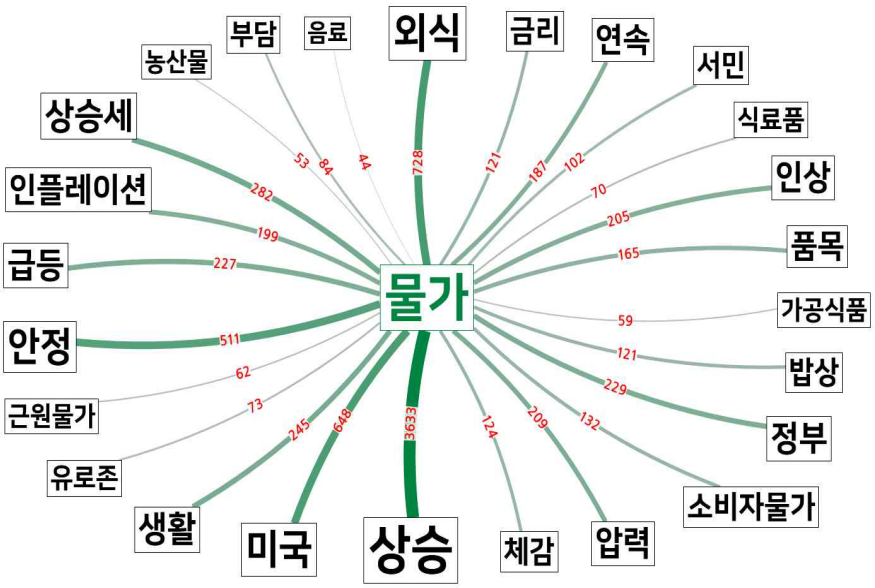


주요단어 : 러시아(4,460), 침공(2,190), 지정학리스크(613), 교역(92), 천연가스(21) 등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적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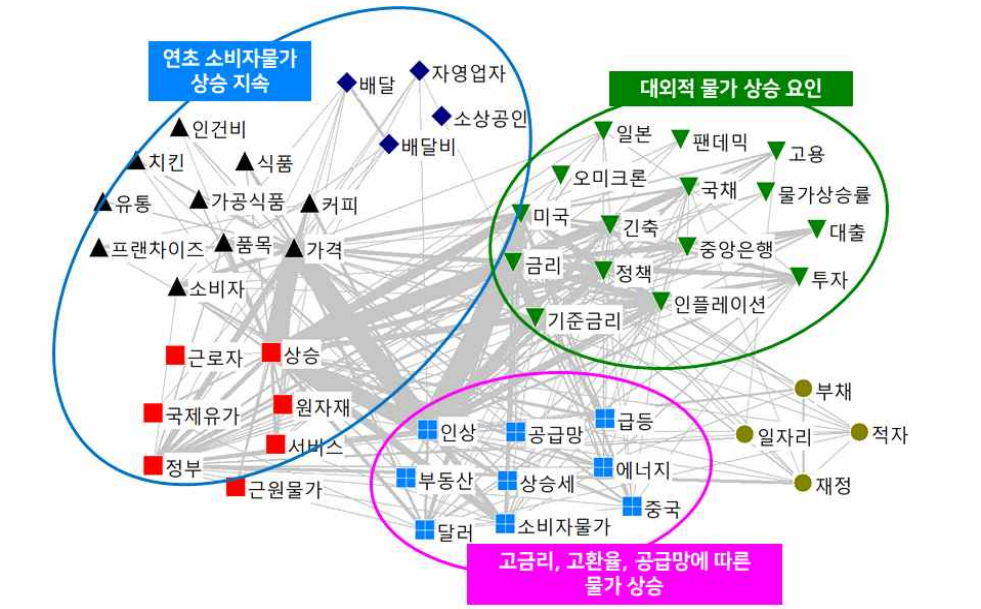


주요 주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조, 유럽의 에너지 위기, 금융 시장 변동성 증폭 등 경제 전반에 타격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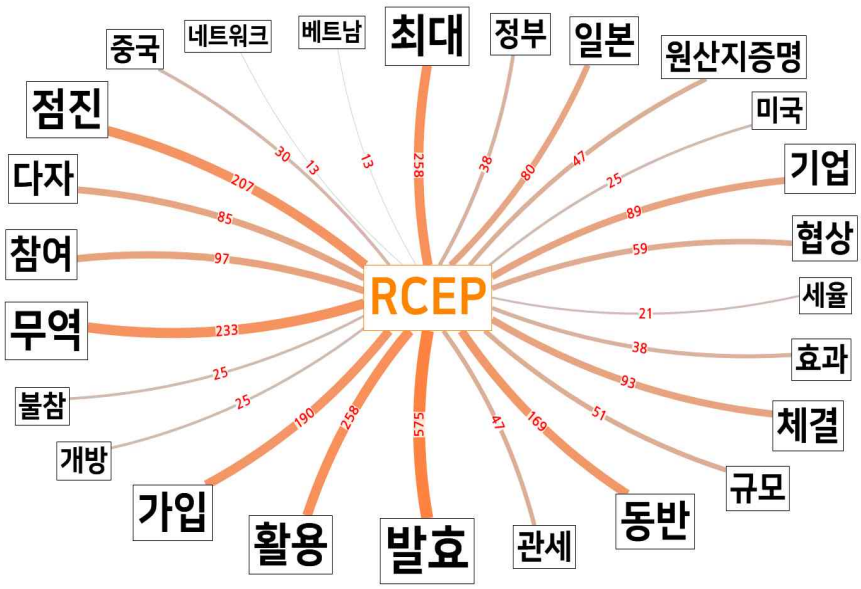


주요단어 : 상승(3,633), 외식(728), 생활(245), 인플레이션(199), 서민(102) 등
연초부터 생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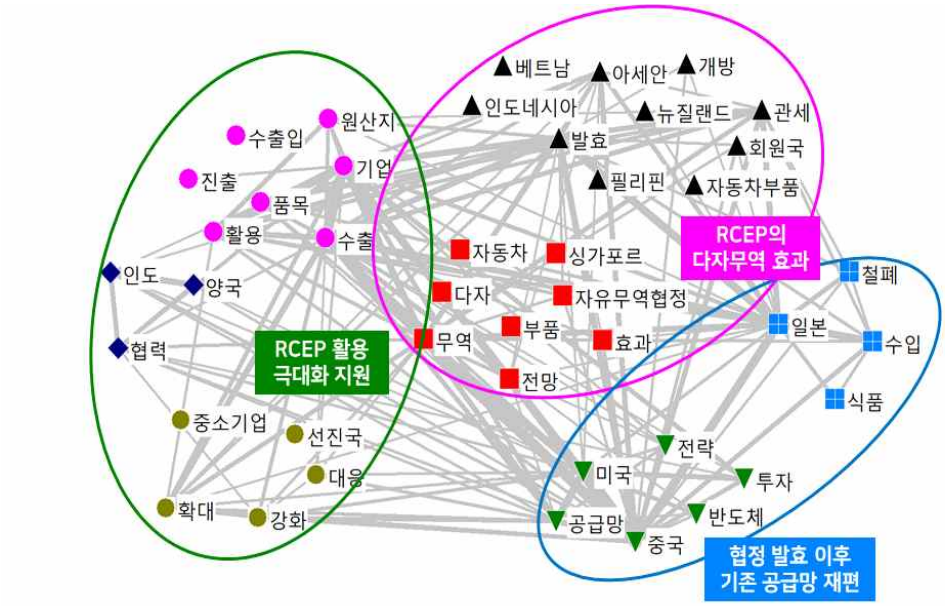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폭등으로 식품, 공산품, 외식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가격 인상

RCEP



주요단어 : 발효(575), 활용(258), 일본(80), 관세(47), 원산지증명(47) 등
RCEP 발효에 따른 기업의 활용 방안 및 효과



주요 주제 : RCEP 발효에 따른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 등의 이점과 이에 따른 기업의 활용 지원, 기존 공급망 변화에 따른 방안과 관련한 내용

※ 분석 기간 : 2022년 2월 1일 ~ 2022년 2월 22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세계 경제 회복의 새로운 리스크

<연관 검색어 : 푸틴, 유가, 공급망, 금융, 경제블록화>

▌현황

○ 우크라이나, 러시아, Nato 간 긴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화
-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
- 2022년 3월 4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비롯, 우크라이나 영토 곳곳에서 전투가 지속

▌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 둔화, 공급망 교란 심화, 장기적으로는 경제블록화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필라듐, 백금 등 희귀금속의 주요 수출국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콩, 옥수수 주요 생산국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탈달러화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어 현재의 마중 갈등을 넘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 간의 대결 구도가 장기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

▌대응

○ 이번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몇몇 제품의 수입과 수출로 제한될 것이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와의 교역은 2021년 기준 수출의 1.6%, 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시하기는 어려운 규모
- 러시아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산업과 나프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니켈 등 희귀금속, 반도체 소재 등의 원자재 수입에서 타격이 있을 전망
-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우리나라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 68위에 불과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 다만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 등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중되고, 세계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투자 유인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장애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부양책 준비가 필요
- 특히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애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등 전쟁과 제제로 인해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한 금융 등 지원 방안 모색
-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경기부양 정책 마련

2. 물가 : 생활물가 인상과 영향

<연관 검색어 :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농축수산물, 근원물가>

▌최근 소비자 및 생활물가 인상

○ 대구와 경북의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는 3.7%와 4.2% 상승하여 전국 3.6%보다 높은 수준

- 대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 2.7%p 증가하여 3.7%이며, 경상북도는 전년동월대비 3.5%p 증가하여 4.2% 상승

※ 2022년 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하면, 경북은 3위, 대구는 7위 [제주(4.6), 강원(4.3), 경북(4.2), 충남(4.0), 인천(3.9), 세종(3.9), 전남(3.8), 대구(3.7) 순이며, 부산은 3.4%, 서울은 3.1% 상승]

○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생활물가 크게 상승(2022년 1월 전국 4.1, 대구 4.3, 경북 4.7)

- 특·광역시보다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도 단위에서 높은 물가상승률 시연

※ 물가인상 요인은 품목별로 농축산물의 인상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2021년 농축수산물 물가인상률이 8.7%로 2020년 6.7%보다 약 2%p 인상

▼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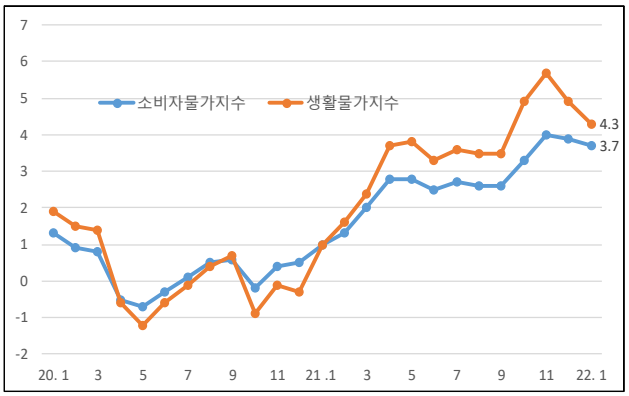
물가		연도별 동향(전년비)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2019	2020	2021	'21.10월	11월	12월	'22.1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0.4	0.5	2.5	3.2	3.8	3.7	3.6
	생활물가지수	0.2	0.4	3.2	4.6	5.2	4.6	4.1
대구	소비자물가지수	0.7	0.3	2.6	3.3	4.0	3.9	3.7
	생활물가지수	0.5	0.2	3.5	4.9	5.7	4.9	4.3
경북	소비자물가지수	0.2	0.1	2.7	3.7	4.4	4.4	4.2
	생활물가지수	-0.1	-0.2	3.5	5.4	6.0	5.4	4.7

자료 : 통계청, 전국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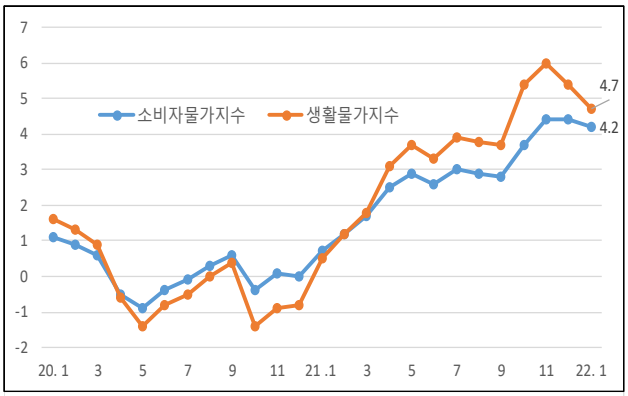
○ 2021년 11월 이후 물가 증가가 다소 꺾이고 있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021년 1월 이후 대구와 경북지역의 물가인상률 추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 압도

<대구>



<경북>



자료 : 통계청, 전국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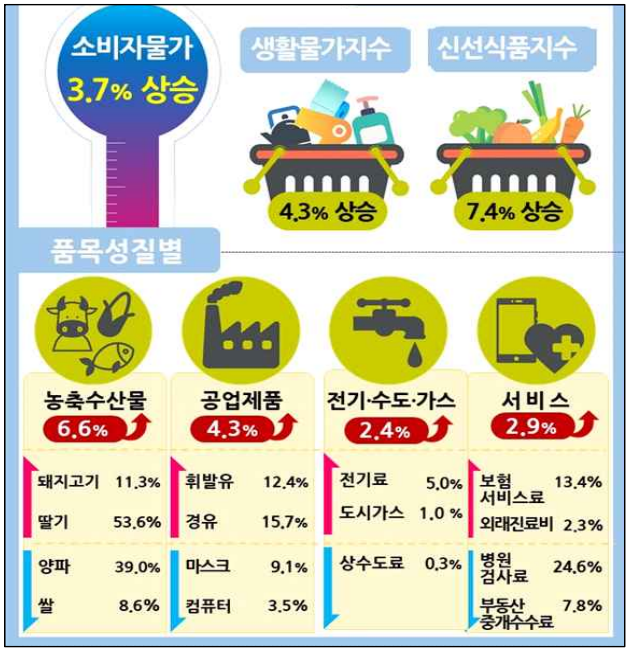
▲ 대구경북 소비자 및 생활물가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 대구와 경북의 품목별 소비자물가는 신선식품지수와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많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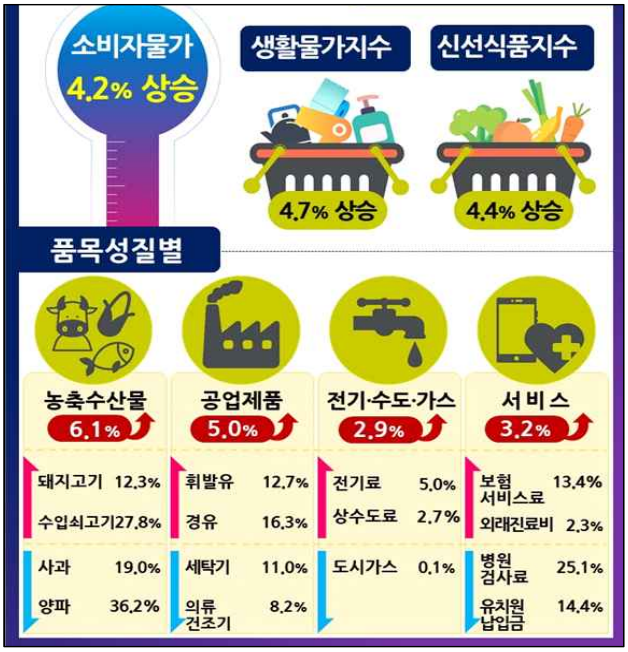
- 대구의 신선식품지수는 7.4% 상승했고,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6.6%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은 생활물가지수가 높고 농축수산물은 6.1%, 공업제품은 5.0% 인상

※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서 딸기, 닭고기, 호박 등의 품목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으며, 공동주택관리비, 전세, 수입승용차 및 자동차수리, 커피, 떡볶이 등의 품목에서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대구>



<경북>



자료 : 통계청, 2022년 1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2022.2

▲ 2022년 1월 대구경북 품목별 소비자 및 생활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물가인상의 영향과 대책

○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경기지수와 달리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

- 물가는 2021년부터 국가경제·국내경기의 회복 인식이나 일자리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
- 2021년 2분기부터 체감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물가 항목으로 분석되고, 당분간 물가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폭등으로 식품부터 공산품,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가격 인상 지속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까지 요동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불안 심화

○ 물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도 우려

- 소비가 줄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고물가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증대
- 최근 물가 불안은 대내외 요인이 겹쳐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며, 물가인상은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감소시켜 주민 삶의 질 하락 예상

○ 근원물가를 이루는 농수산 및 생활 물품의 수급 관리와 적극적인 가격 모니터링 필요

-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와 내구재, 개인서비스 등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이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를 의미하는데 한 번 오르면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음. 농축수산물이나 소비재 제품의 수요 공급 물량의 적극적 관리 필요

※ 특히 근원 품목 가운데서도 외식 품목의 물가상승 확산세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외식가격 공표제'(주요 외식 품목 가격과 등락률 매주 공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시장 감시 노력 강화 필요

3. RCEP : RCEP 발효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연관 검색어 : RCEP, 일본, 중국, 아세안, 원산지 기준>

▌현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한국·호주·중국·일본·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중국 주도로 구성

- 비준을 마친 국가들부터 2022년 1월1일에 선행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21년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후 60일이 지난 2022년 2월부터 정식 발효
- 서비스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된 낮은 단계의 협정

○ 참여국 합산 GDP 규모가 26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교역 규모도 5조 6,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32% 정도

○ 한·일 간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

-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 예정

▌영향

○ RCEP 체결로 아·태 지역 내 상품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역내 교역 증가,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기대

-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RCEP 체결로 2030년까지 회원국 간 교역 5,200억 달러, 국민 소득 1,860억 달러 증가 전망

○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 범위가 늘어날 전망

- 중국과 일본, ASEAN 10개국을 포함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수월

○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됐으나 RCEP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 농업 분야의 경우 열대과일의 수입 증가로 농가에 부정적 영향 전망

- 전체 농산물 HS(국제기준 품목분류 코드)의 63.4%에 해당하는 1,029개 품목에 대해 20년 이내 관세 철폐
- 특히 대추야자, 구아바,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대부분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이어서 수요가 겹치는 국내 과수 생산농가 타격 전망

○ 대구경북 지역은 RCEP 발효로 일본 수출 관세가 사라지게 돼 단기적으로는 섬유, 중장기적으로는 정밀·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 대구에서 생산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혼방재생단 섬유, 염색순면 직물 등에서 관세 4~7.1%가 철폐
- 스판덱스, 아리마드 등 합성 섬유와 섬유사 등 섬유 후방산업이 많은 경상북도 관련 업체도 3.5~7.9%의 관세 철폐로 수출 여건 개선
- 중국산 직물은 10년 뒤인 2021년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

○ 인도네시아의 관세 장벽도 해마다 1%씩 낮아지게 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경쟁력 개선 기대

- 최고 관세가 40%에서 발효 이후 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엔진, 안전벨트, 에어백 등 10~30%의 관세가 부과되었던 자동차 부품들도 관세 철폐로 긍정적 효과 기대

▮ 대응

○ 지역 수출입기업들은 기 체결 FTA와 RCEP 협정별 관세 양허 스케줄, 단계별 양허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원산지 증명 방식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가장 유리한 협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활용 필요

○ 또한 관세철폐 기준과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준연도와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품목의 수출 시기와 품목 코드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필요

○ 지방정부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RCEP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박민규

연 구 원 : 이승아, 박효찬, 송화영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